

주말, 여기 10월 첫 주말 자연·문화유산 축제

보고 걷고 맛보며 느끼는 제주 유산의 매력

제주도 2026 세계유산축전
3일부터 16일간 여정 펼쳐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
4일 불미공예 등 재현 예정
성읍 전통민속 재현축제
3~4일 무대·체험 행사 등

축제의 계절 10월이 왔다. 이번 주말엔 제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가 잇따른다. 2026 세계유산축전, 제33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 제32회 성읍 전통민속 재현축제다. '2026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국가유산청과 제주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사)제주유산마을미래가치연구원이 주관한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2026 세계유산축전 포스터.



정의현감 부임 행사 재현.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제공

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이달 3일 오후 7시30분 만장굴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실경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축전 기념식은 만장굴 발견 80주년이자 부총후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미래 세대로 전하는 자리다. 부총후 선생이 8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의 세계유산을 마주하며 "왜 우리는 이 유산을 지켜왔는가, 왜 앞

으로도 이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서사를 보여준다.

축전은 16일간의 여정 동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 일원에서 워킹투어, 특별탐험대, 별빛산행 일출투어 등을 펼친다. 이 중 워킹투어 일부 일정은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축전 공식 누리집 참고.

제33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는 3~4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

리 민속공연장에서 진행한다. 덕수리는 '불독숲의 민속문화가 있는 숲 굽는 마을'이다.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덕수리 불미공예'와 '방앗돌굴리는노래'를 보유했다.

축제 둘째 날 두 무형유산 종목을 차례로 재현할 예정이다. 동아리 공연, 민속 경기 등도 준비했다.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의 제32회 성읍 전통민속 재현축제는 3~4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마을 남문 일원에서 이뤄진다. '제주 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성읍은 조선 시대 정의현의 읍치였다.

첫날에는 전통 민속 재현 공연, 전통놀이 한마당, 정의현감 부임 행사 재현, 성읍초 사물놀이, 국가무형유산 제주민요보존회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제주성산한마음민속회 공연, 제주어 과거시험 등을 마련했다. 전통 떡 시식, 공방 체험, 플리마켓 등도 상설 행사로 꾸린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낭만가객 회원전 전시장. 김준수 작가의 작품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전선희기자

오랜 기다림의 사진에 일렁이는 빛

키네틱 아트 김준수 작가 동행
제주낭만가객 11번째 회원전
액자·조명 없는 전시 등 운영

액자와 조명이 없는 전시였다. 현수막 전에 사진을 프린트해 설치물처럼 내걸었고 그 주변에 빛이 일렁인다. '아티스트 김준수 작가와 동행'이란 부제를 달고 진행 중인 사진 단체 '제주낭만가객'의 11번째 회원전이다.

이번 회원전에는 강평관·변승만·양연심·윤정하 사진가가 참여했다. 전시장은 제주시 노형동 미르빌딩 3층(노형11길 5-5). 도내 공공 전시장을 빌려 볼 수 있는 기간이 1주일 정도여서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가량 활용할 수 있는 도심 건물의 빈 공간에 작품을 펼쳤다.

특히 "기존의 전시 방법을 탈피해 보자"며 키네틱 아트 작업으로 잘 알려진 김준수 작가를 초청했

다. 김 작가의 서울 전시장을 수차례 찾은 끝에 성사된 '동행'이다. 모터, 기어, 베어링 등 기계 메커니즘을 통해 빛의 굴절과 산란을 증폭시키는 실험을 지속해 온 김 작가는 이번에 '모든 오브젝트는 구성 요소' '각각의 요소' '현재의 측정' 등 3점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낭만가객 회원들은 부서는 파도, 오름, 은하수 등 제주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저마다의 기법으로 화면에 담았다. 길게는 8시간의 기다림 끝에 건져 올린 사진들은 김 작가의 작품이 빛내주는 오묘한 빛과 공존하며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지난달 30일 전시장에 만난 양연심 작가는 "이 전시를 통해 김준수 작가의 작품을 제주에 처음 소개하고 있다"며 "흐린 날 방문해 찬찬히 둘러보면 사진과 어우러진 빛의 움직임이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전선희기자

종교·종단 경계 넘어 희망의 화음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5일 제12회 평화음악회

제주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생명 존중의 의미를 나눈다. 개신교·원불교·불교·천주교 등 4개 종교가 참여한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달 5일 오후 6시30분부터 제주시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펼치는 제12회 평화음악회다.

이번 음악회는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이름을 달았다. 출연진은 '팀. 랜즈(Team.LANDS)',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소나이합창단, 원불교 원음합창단,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

스님, 천주교 사제단 밴드 '블랙서츠' 등이다.

음악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종교계와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생명 존중 캠페인이 열린다. 도민들은 행사장에서 스트레스·우울 등 마음건강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화분가꾸기, 염주·소원등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인 박병해 목사는 "거센 파도처럼 우리 삶에도 갈등과 상처,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손을 맞잡을 때 다시 희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며 음악회에 초대했다. 전선희기자

섬 깊은 곳의 소리 시청각에 담다

8일 정은선 작곡 발표회
자연·일상 모티브로 6곡

정은선(사진) 작곡가가 제주에서 길어올린 소리를 모티브로 작곡 발표회를 연다. 이달 8일 오후 7시30분 비인 공연장.

발표회 제목은 '섬의 음영, 밀도의 음악'. 섬의 원초적인 시간을 품은 첫 번째 소리를 시작으로 한 편의 이야기처럼 6곡의 신곡을 풀어낸다. '음영의 궤적', 'Unspoken(무언)', '삶의 운율, 웅이자



랑', '빛의 스며들', '조류이 숨 쉬는 시간', '새벽 숲, 빛의 잔향'이다. 4채널 고정 음원과 영상·조명을 활용한 오디오·비주얼 작품으로 막을 연 뒤 플루트, 유포니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실내악 선율로 제주가 간직해 온 사연을 건넨다.

정은선 작곡가는 "제주라는 섬의 환경 속에서 체감되는 소리의 밀도와 음향적 음영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요함 속에 피어나는 소리와 여백의 미학을 전하고자 했다"며 "시청각적 대비와 라이브 연주의 숨결을 통해 관객들이 제주의 원초적인 시간과 낯선 여정 속에서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좋아한 일이 삶이 되기까지
두모악포럼 4인 릴레이 강연

우리 시대 인문 실천가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는 인문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두모악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10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오후 5시30분)마다 김영갑 갤러리두모악 제1전시관에서 이어진다. '오래 좋아한 일이 삶이 되기

까지'를 주제로 한 4인의 릴레이 강연으로 꾸민다.

강사는 3일 조환진 돌빛나예술학교 교장, 10일 윤홍경숙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17일 박훈일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미술관 관장, 24일 강영미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관장이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신선경 판파라농부와 은영 신솔목 학교장이 '좋아하는 일을 재구성하는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선착순 30명. 참가비 무료. 전선희기자

전통을 잇고 화합을 더하다.

제12회 吳氏宗親 한마음 체육대회

소중한 종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12회 吳氏宗親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같은 뿌리를 이어온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하시어 즐거운 추억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일시 2026년 10월 25일(일) 오전 10시

장소 조천체육관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 주 최: 군위오씨대동종친회
- 주 관: 군위오씨대동청년회
- 프로그램: 개회식·단체경기·화합의 시간·경품추첨
- 사 무 국: 010-9161-4885

뿌리의 자긍심으로 함께하고 화합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날

군위오씨대동종친회장 **오 철 종**
군위오씨대동청년회장 **오 상 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넋끼마을**

2026 하천리 금덕이 축제

2026.10.9.(금) 13:00 ~ (시상식: 17:00)
하천리 소금막 해변 일원

주요행사 효자시상, 민속놀이, 구멍낙시, 국수·먹거리, 해녀체험, 노래자랑, 염원지쓰기, 캠프파이어

농촌공간계획 지역현안 발굴 "주민참여 발전의제 투표"

주민주도 실천활동 - 지역공동체 교류 확대 "제주 빙떡만들기 체험"

주최 하천리 마을회 후원 노인회 · 청년회 · 부녀회 · 어촌계 · 해녀회
하천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